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여름철 국민 건강 지킨다

-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
- 폭염 피해 발생 경향과 기후변화 추세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공기 온도)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하였고,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되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사항  
 2. 체감온도 서비스 설명자료

담당 부서	예보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김강하 (02-2181-0493)



## 붙임 1

##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사항

구분	주의보	경보
기존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개선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p> <p>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p>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p> <p>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p> <p>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p>

## 붙임 2

## 체감온도 서비스 설명자료

체감온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것	
여름철	기간	5~9월
	내용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여름형
	산출식	$\text{체감온도} = -0.2442 + 0.55399 Tw + 0.45535 Ta - 0.0022 Tw^2 + 0.00278 Tw Ta + 3.0$ <p>▶ (입력변수) 기온(Ta), 습구온도(Tw, Stull의 추정식*(Ta 및 RH) 이용), 상대습도(RH)</p> <p>* <math>Tw = Ta \text{ ATAN}[0.151977(RH+8.313659)^{1/2}] + \text{ATAN}(Ta + RH) - \text{ATAN}(RH - 1.67633) + 0.00391838RH^{3/2} \text{ ATAN}(0.023101RH) - 4.686035</math></p>
겨울철	기간	10~4월
	내용	기온과 바람을 고려한 겨울형
	산출식	$\text{체감온도} = 13.12 + 0.6215 Ta - 11.37 V^{0.16} + 0.3965 V^{0.16} Ta$ <p>▶ (입력변수) 기온(Ta, °C), 풍속(V, km/h / 10분 평균풍속)</p>